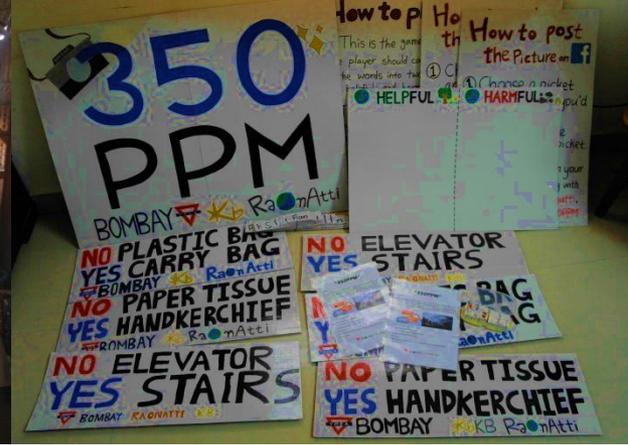


# 월드컵 특집 6월 보고서 '네얼간이'



# 일정

S	M	T	W	T	F	S
1 Colabar YMCA - 지구시민교육	2 주후 - 캠페인 최종점검	3 주후 -350PPM 캠페인	4 주후 - 350PPM 캠페인	5 주후 - 350PPM 캠페인	6 Foundation day 행사 참여	7
8	9	10 Andheri - 350PPM 캠페인	11 Andheri - 350PPM 캠페인	12 Bandra - 350PPM 캠페인	13	14
15	16 Andehri Boys'home 아이들과 지내기 시작한 날!	17 주후, Andehri Boys'home	18 Andehri Boys'home 주후	19 Andehri Boys'home	20 Andehri Boys'home 주후	21 Andehri Boys'home
22	23 Andehri Boys'home 주후	24 Andehri Boys'home	25 Andehri Boys'home 주후	26 Andehri Boys'home	27 Andehri Boys'home 주후	28 Andehri Boys'home
29	30 Andehri Boys'home 주후					



## 네 일간이 Vs. 350PPM

네 일간이팀은 뭄바이 전역에서 찾아오는 다수를 대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Juhu 해변에서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후는 평소에 주후 센터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을 보러가는 곳이기도 한데, 전부터 오며가며 350PPM 진행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던 터였다. 하지만 공공장소로 사적인 목적으로 빌리기 힘든 곳이기도 한데, 예전에 이곳에서 3년을 거주한 YMCA 직원인 마노즈가 허가를 받아주었다.

직접 만든 실천사항 피켓, 설명지, 그리고 능력자 예원단원이 직접 디자인한 장바구니와 손수건을 준비하는 등의 점검을 마친 뒤 드디어 캠페인 날이 다가왔다.

6월 2일에 모든 캠페인 관련 물품 정리를 마친 후, 3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총 3일 동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후 센터에서 봉사자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업무 배분을 한 뒤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네 일간이 Vs. 350PPM

첫날, 예상 동선과 다르게 움직이고 기본적인 인파를 파악한 뒤 둘째날부터는 이를 반영하여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캠페인은 350PPM에 관한 '설명 테이블'과 캠페인 관련 게임 및 실천 다짐 사진을 찍는 '활동 테이블' 그리고 활동을 끝내고 난 뒤 증정품을 받는 '선물 테이블'로 구성하였다. 이에 더해, 첫날 예상보다 적은 참여 인파를 고려하여 캠페인 장소 부근에서 사람을 모으는 역할도 생겨나게 되었다. 각 부분에는 단원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현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협업하고 상황에 맞게 위치를 바꾸는 등 캠페인이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래 전부터 평균 일인당 탄소배출량이 적은 국가에서 캠페인을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 Mumbai, 특히 주후 해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고 또 국가단위의 탄소 배출량 역시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사진과 게임 등의 활동으로 지루하지 않게 실천방안을 알려줌과 동시에 사진을 찍음으로써 스스로의 다짐을 굳히게 하였다.



## 네 얼간이 Vs. 350PPM

주후에서 비교적 대규모로 캠페인을 끝낸 뒤 YMCA 에서 단원 네명으로만 진행되는 형식으로 축소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뭄바이 전역에서 몰려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개별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해당 캠페인의 의식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이전 해변에서의 캠페인 참여자가 대부분 성인 남성이었다면 이번에는 여성 및 아이들의 참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때문에 힌디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각 YMCA 관계자 중 한 분이 그럴 경우 도움을 주어 큰 문제 없이 마칠 수 있었다.



# 피할 수 없는 경기 피드백

1.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를 예상하였지만 실제로 주후 해변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캠페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집한 인력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리지 않아 캠페인 중간에 전체 봉사자 인원중 3명 정도를 빼서 사람을 불러모으는 임무를 맡은 팀을 꾸렸다.

2. 야심 차게 준비한 코너중에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 자신의 담벼락에 해쉬태그#과 함께 사진을 올리는 것이 있었다. 그럼으로써, 검색만으로도 모든 이들이 참여자가 실천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도 한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궁여지책으로 페이스북에 직접 캠페인 관련 페이지를 만들어 일일이 사진을 게시하였으나 본래의 의도가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

3. 주후 해변에서 진행하였던 캠페인의 방문자들은 대개 영어를 원활히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실정은 그렇지 않았고 예상보다 많이 힌디로 설명이 필요하였다. 다행히 인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현지인 봉사자들이 힌디로 역시 설명을 잘해주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4. 하루평균 진행에만 14명의 인원이 필요하였고, 이에 캠프에서 자원봉사 진행자로 만난 친구들이 참여하였다. 다른 관계자의 도움없이 단원들 스스로 친구들의 참여의사를 물어보고 확정하였고 의미있는 자리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단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Andheri YMCA 에서는 회원뿐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역시 캠페인 의식을 전할 수 있었다.



Bandra YMCA, 한 때 청년 구직을 돕는 이곳 프로젝트를 참관하며 알게 된 social worker Chandracan의 도움으로 여성 및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힌디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HIGHLIGHTS

한명의 MVP가 아니라 매순간, 함께한 모두가 빛이났던 시간들이었다.



## Juhu Center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된다는 말을 여러차례 확인 하고 또 우기가 시작되면 매일 하루종일 비가 계속 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에 따라 단원들은 그동안 주후에서 진행하였던 야외 활동 및 신체를 이용한 놀이 대신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주후 아이들의 학교가 개강함에 따라 보이즈홈과 그 일정에 추어 주니어와 시니어를 대상으로하여 각각 월, 금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준비한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우선 학교 숙제 및 준비물(책 커버 씌우는 등)준비 등을 도와주고, 캠페인 배너와 하드보드지를 재활용한 파일 꾸미기, 활동지 및 미술 활동에 관한 유인물을 준비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역시 계속 주후에 방문할 예정인데 아이들의 성향과 기호를 파악하여 적절한 활동지를 준비해 갈 예정이다.

※ 읽을 때 주의사항 ※

1. 개구장이, 말썽꾸러기들의 성향은 기본으로 다 깔려있음.
2. 친히 pari 위주의 시선이므로 공감 못 할 수 있음.

여기서 잠깐!!!

두달 간 미운정 x2 든  
사랑스럽고(??) 귀여운(???????)  
주후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Lions Club of Ju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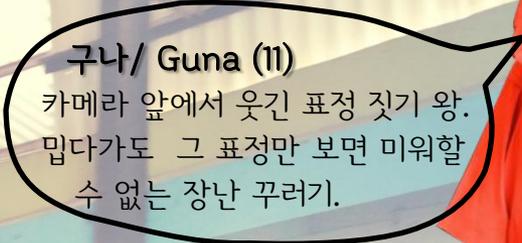
비쇼짓, 아폴, 크리스나/Bishujit, Atul,  
Chrisuna (15, 16, 17)

현재는 아폴만 남아있는 상태! 비쇼짓은  
홈타운에 갔고, 크리스나는 대학  
진학준비중~~!

장난스러우면서도 믿음직한 주후의 맏형들!



**아쉬시/Ashish (10)**  
 내가 바로 기분파 반.전.남.  
 어쩔 때는 정말 조용한,  
 저절 때는 제일 신난 재간둥이 .



**구나/ Guna (11)**  
 카메라 앞에서 웃긴 표정 짓기 왕.  
 밉다가도 그 표정만 보면 미워할  
 수 없는 장난 꾸러기.



**아비나쉬/Abhinash (13)**  
 나이는 어리지만 의젓한  
 그대가 바로 주후의 젠틀맨!



**찬단/Chandan (14)**  
 첫 인상에 속지 마세요.1탄  
 처음봤을 때 그 누구보다 수줍어하던  
 그대지만 5분만에 그 누구보다도  
 웃긴...!

**우뜨까르쉬/Utkarsh (15)**  
**아비섹/Abhishek (16)**  
 사이좋은 의형제. 딱 보면 조용한  
 우뜨까르쉬가 형인 줄 알지만... 사실 말  
 많고 호기심 가득한 아비섹이 형이라는  
 함  
 영이!!!



**미힐/Mihir (14)**  
 Pari 의 짝사랑.(키키)  
 형들이 심부름시키면 꼬박꼬박 다  
 해주는 착하고 한 없이 착한남자



**아비섹/Abhishek (10)**  
 까칠하고 시크한 줄 만  
 알았더니 눈물도 흘리는  
 여린남자. (운 이유는...  
 아비섹 프라이버시^^)

**라홀/Rahul (10)**

구즈라피어 폭발.  
주후에서 디디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 넌 뭘해도 용서해줄게. 그니까  
컷피는 이제 그만~~!



**프라빈/Preven (11)**

아난드의 웬수이자 앙숙이며  
한편으로는 둘도 없는 아난드의  
친구. 뭐든지 의지만 강한 (^\_^)  
욕심쟁이 ☺

**비나약/Vinayak (11)**

주후의 악동 중 악동.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  
질투는 나의 힘 ~!

**망게쉬/Mangesh (14)**

**가네쉬/Ganesh (12)**

2살이나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둘이 쌍둥이  
처럼 너무 닮아서 헛갈려~~! 참고로  
가네쉬는 손이 굉장히 매워서 절대로 먼저  
때리는 일은 없도록!

**디네쉬/Dinesh (14)**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알고 보면 은근 푹푹이!  
장난이 심할 때도  
있지만  
자기편(?)에게는  
무지하게 잘해주는  
의리파 사나이



**니낄/Nikhil (?)**

첫 인상에 '제발' 속지 마세요. 2탄  
주후에 합류한지 얼마 안된 따끈  
따끈한 New boy! 제일 어리지만  
패기 충만한 니낄 나가신다!





HIGHLIGHTS





## Andheri Boys' home

보이즈홈 근처 학교들이 개학함에 따라 6월 15일부터 아이들이 보이즈홈으로 다시 돌아왔다. 따라서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단원들은 보이즈 홈 아이들의 시간표에 맞게 생활 패턴을 바꾸고, 늦게 본 만큼 되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곳 도서관에 수없이 많이 쌓인 책을 우선 정리를 하고 매번 책이 쌓이는 이유와 라온아피 단원들의 부재시에도 체계적인 도서 정리 및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곳 보이즈홈 책임자인 Allen과 역시 논의해 볼 예정이다.

더불어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 장난감 도서관의 기준에 계획하였던 운영방식 대신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장난감(보드게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







## Kamathipura

지난 5월에 있었던 연이은 캠프와 중간 평가, 그리고 캠페인 준비로 인해 까마티푸라에 방문하지 못한 단원들은 6월에 들쨍주와 넷째주 두 번 방문하였다. 만나기만 해도 반가운 아이들이지만 들쨍주 방문 이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무언가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하여 넷째주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색칠활동을 준비하여 갔고 재미있어 하였다. 또한 데이케어센터 인근 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방문 및 쓰레기 수거 활동 역시 재개하였다.





HIGHLIGHTS





## Colaba YMCA

350PPM 캠페인을 이틀 남겨둔 6월 1일 일요일에 Colaba YMCA에서 지구시민 교육을 해달라고 Andheri의 Richard의 부탁을 받았다. 다음주가 바로 캠페인이고 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으나 캠페인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Colaba YMCA에서 지구시민 교육에 관한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의 롤플레잉 활동을 한 시간 남짓 진행하게 되었다.

지구 시민 교육은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여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고 참여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간 두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담당자이자 우리에게 부탁한 Richard에게 여러번 정확한 인원수를 물어보고 연령대를 물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인원과 연령대를 전달받지 못하여 진행상 문제가 있었다. 이곳의 일처리 문화를 익히 접하여 이해해 넘길 수도 있지만 큰 활동인 캠페인을 앞둔 일요일에 왕복 세시간 남짓한 곳을 찾아간 단원들에게는 조금 힘이 빠지는 날이었다.

# 일상 생활





5월 말 6월 초쯤부터 출몰하고있는 지렁이를 시원하게  
걸어내고 있는 김누리 선수 (24)



이것이 우기인가.....?

아니, 우기인줄 알았다.....

6월 중순부터 우기라더니 이 때의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구름 한점없이 맑은 날이 계속되었다.....



본격적인 우기철과 월드컵을 맞은 단원들은 앞마당에서 YMCA회원들과 수중전을 벌였다. 처음해보는 축구에 천부적인 소질을 발견한 다른단원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캠페인이 끝난 단원들은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되었다.  
머리를 제외한 부분은 바꾸기가 힘드므로 (적어도 현지에 있는 동안에는) 기분전환도 할겸 머리를 잘랐다.

# Pritie (F.C Sanchung) vs. pari (F.C Songpa)



특이사항 : 적극적으로 열심히 함.  
아직 어리므로 잠재력이 있다고  
해둔다.

특이사항 : 볼 점유율에 있어 단연  
돌보이는 빠리 선수 특유의  
마성의 개인기로 수비를 홀린다.  
과연 골 결정력은 어떨지.....

! 요즘은 수비수가 공과 얼굴을  
혼동하여 얻어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함.

!!





예원 단원 공인구설.  
갈수록 뚱그래져가는 예원단원과 공



Vs.



친구인 티모th | 의 생일 파티에 초대 받았다. 월드컵시즌을 맞아 동네 풋살장에서 미니게임을 하였다. 사진을 찍어준 예원 단원은 축구를 하지 않아서 많이 심심하였을 듯 하다.  
그나저나 인도 축구의 맛이란..... Masala yo!

# 개인 에세이





정주영(24)

밤 산책을 하다가, '문제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이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재작년 사회학 수업에서 한 교수님께 하셨던 말 중에 '학문의 첫걸음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수용하는 것 즉, 다름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말 역시 떠올랐다.

아차 싶었다.

편견과 오만의 썩은물에 고인 내 모습이 가만히 뇌리에 스쳐가면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거리를 걷는데 누가 이런 나의 생각을 알까 두리번 거렸다.

처음에, 그리고 사실 얼마전까지 이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Bitash(가명)라는 사람을 끔찍이도 싫어하였다. 나와 그의 업무를 앞에 두고 서로 다른 일을 버젓이 하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웃고 매번 기다리게 하고.....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입에 담아서 안 되는 욕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깎아 내릴까 고민도 많이 하였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 나는 아직 2개월도 보지 않은 그 사람의 상(象)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고, 그 모래성과 같은 불완전한 상을 비추는 내 안의 흐릿한 거울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며 재단하고 있었다.

내 안의 그 거울이 그의 실체를 잃게 하고 그를 악마의 화신으로 투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야 실제로 그가 사무실에서 맡고 있는 일이 가장 많고 바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고 회계처리 과정상 매번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느 정도 그 상황과 그의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자 아마 처음부터 내게 다가오고 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었던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겪은 모든 만남과 마주한 사실, 어떠한 생각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견지한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틀린것으로 받아들인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새롭게 배우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또 얼마나 비루한 나만의 생각의 틀로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미치자 혼란스러웠다.

돌아오는 길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났다. 어떻게 두어 구절의 말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할까.

Post Essay) 생각해보면 당연한 노릇이었다. 하루에 깨어있는 15시간 정도를 보내면서 과연 몇시간이나 성찰 자기반성을 할까 생각해보았는데,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나마 그것도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할 수있는 에세이거리를 생각한다면 어쩌다 깊게 인상이 남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이지, 실은 단 1초도 하지 않는 날들이 부지기수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대부분의 시간은 본능에 이끌려 화가나있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기마련일 뿐.....

결국 나 자신은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중의 단 1%도 반성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따지고보니 억울할 것도 없었다. 다만 앞으로 에세이에 나타난 반성하는 1%의 나와 조금 더 만나고자 한다.



주다은(24)

에세이를 6월 중반부터 일찍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나의 감정들과 느낌들을 쓰기 전에 잊어버릴까봐. 순간순간 느낀 감정들을 모조리 이곳에다 쏟아 붓고 싶었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광범위하여... 한 마디로 복잡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많은 걸 보고, 짧은 순간에 많은 걸 느끼는 데 그걸 어떻게 이 한 곳에 함축적으로 이어서 연속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나에게는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에세이는 산만하게 섞어서 내가 느꼈던 것과 이곳의 65명의 친구들과 동거동락하며 느낀 나의 고민들을 써보려고 한다.

**1. 우선.... 키가 크고 있는 것 같아 울적하다..** 중요한 건 살은 그렇게 많이 안 찌는데 먹는 족족 위로 솟는 기분이다. 여기 있는 프란시스랑 도널드라는 요리사가 있는데 요리를 정말 잘한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는 월요일 빼고는 입에 닭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치킨이 매일같이 나오고 갓 튀겨낸 뿌리도 먹을 수 있었다. 뿌리를 락앤락통에 싸가지고 다니고 싶었지만 내가 그렇게 싸가지고 다니자하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유는 모르겠지만 싱싱한 갓 튀겨낸 뿌리를 먹을 수 없었고, 결국.. 한 번 싸가지고 나갔다. . 훌륭한 요리사분들을 둔 덕분에 나의 먹는 양은 정말 많이 늘었다.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먹는 행위를 좋아한다는 팀원들의 말처럼... 난 그렇게 먹고 있고, 그렇게 크고 있다. 나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 (정신적으로가 아닌 진짜 성장^^)

**2. 진짜 성장 이외에 정신적으로 ‘마음의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번 에세이를 쓰기 전 내 다이어리에 적혀있는 나의 6월을 돌아보았다. 온통 힘들고 시간 안 간다고 징징대는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벌써”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달이기도 하다. 6월 초반에는 시간이 그리 빨리 가는지 몰랐는데 아이들을 만나고 난 후 점점 중반이 지나고 나니 시간이 말 달리듯이 미친 듯이 뛰는 듯 했다. 나에게 6월은 보이즈홈 친구들이 오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오는 시기가 350ppm 캠페인이 바로 끝날 때라 걱정이 되었다. 한창 사기 총만하고 컨디션 최상일 때 만나고 싶었는데 350ppm 캠페인이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나는 낙다운이 된 상태에서 친구들을 맞이했고. 안 그래도 늦게 만나서 최대한 빠르게 친해지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침체기가 그나마 빨리 회복 되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에게 미안한 건 사실이다.

### 3. 자주 앉기

그래서 내가 이 곳에 있는 짧은 시간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우선 이름을 다 외우는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7월 초인 아직까지도 아이들 이름을 외우고 있는 중이다.(미안 애들아..) 생각해낸 또 다른 방법은 자주 앉기와 공식적인 활동 이외에도 내 체력이 되는 한, “친구들 곁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인데, 내가 평균여자들에 비해 키가 아주 조.금.(^^)크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과 같이 걸을 때 눈 맞추기가 힘들고 어려웠다.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욱 더 힘들었고, 친구들도 항상 나를 쳐다볼 때 고개를 90도 이상으로 올려다 보고 쳐다보아야 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항상 나를 부를 때 마다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앞에 앉아서 아이들 눈을 마주치려고 했고, 그러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런 나의 고충을 아니... 흑흑) 물론 짧은 순간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 친구들이 느낄 수 있을까???

#### 4. 나에게 “컷띠”란..?

나에게 “컷띠”란..... 아냐. 이게 더 빠르겠다. 친구들에게 “컷띠”란... 빠리디디를 강아지 훈련시키듯 할 수 있는 명령 같은거...? 컷띠 (정확한 스펠링은 모르겠고... 아마 cutting에서 나온 듯 하다.)란 아이들이 친구관계를 끊고 싶을 때 (우리나라에서 약속할 때 쓰는 제스처랑 비슷함) 자신의 새끼손가락과 친구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의 새끼손가락을 치면서 “컷띠” 라고 말하면 친구관계가 끊어지는... 물러터진 나에게서는 정말 죽을 맛이다. 내 몸은 하나이고 내 친구들은 60명이 넘는데 한 아이와 얘기 중이다가 다른 아이가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거나 관심을 못 가졌을 경우 한 친구가 컷띠, 밥 먹을 때 자기 옆에 안 앉았다고 컷띠, 등교하는데 자기 손 안 잡았다고 컷띠, 어떤 한 명이 컷띠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장난친다고 컷띠.... 어떤 친구들은 단순히 장난일 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컷띠를 했을 때 내가 컷띠라고 말하면 진짜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몇 번 보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빌고 빌어서 결국 “무찌”(컷띠의 반대)를 얻어 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는 지금 길들여지고 있는 듯 하다.. 이리저리.. 나에게 컷띠란.... 그 순간 내 영혼과 멘탈을 빼앗아 버리는 주문. 들었을 때 마치 강아지가 되는 듯한 ... 그리고 밀당. 어느 책에서 “사랑하면서 우리는 어딘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러한 상황을 두고 쓴 문구는 아닐 터. 하지만 왜 이리 나는 이 문구가 지금 내 상황에 절묘하게 들어맞는다고 느끼는지.... 하...

#### 5. 사소한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어떤 곳에 존재하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황이든 물건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내가 신경 쓰지 못해도, 손을 잡아주지 못해도 “컷띠”하지 않고 나를 묵묵히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컷띠”로 인해 나의 혼과 멘탈이 빠져나갔을 때, 그 친구들을 보면서 다시금 기운을 얻기도 한다. 당연히 “컷띠”하는 친구들보다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다. 컷띠하는 친구들을 신경 쓰느라 정신이 팔려 조용하고 묵묵한 이 친구들을 못 챙길 때가 많은데, 내가 가장 고마워해야 할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친구들이라는 걸 느꼈고,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주고 싶다는 걸 느꼈다.

친구들과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이러한 고민들 외에도 순간순간 많은 종류의 고민들을 했고 이 65명의 친구들은 나를 항상 시험에 들게...(좋은 뜻)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고민들을 꼭 해결하지 못 해도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6월의 나는 지금... 큰 성장까진 아니지만 작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다. 나는 6월에 65명의 특별한 친구들이 생겼고 그 친구들은 지금 나에게 기분 좋은 고민거리들을 마구마구 던져 주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을 뒤로한 채 벌써부터 얼마 안 남 았다는게 슬프긴 하지만... 슬프기 전에 내가 고민한 만큼 이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다.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요즘 들어 나에게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김누리(24)

길을 되돌아본다.



김예원(22)

3, 4, 5월 그리고 350PPM 캠페인까지, 너무나 바빴던 3달이 지나가고 6월이 왔다. 지금까지 바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나고보니 내가 무엇을 위해 이 활동들을 해왔나 싶고 나에게 남은 건 뭘까 싶었다. 그렇게 찾아 온 허탈, 의욕 상실, 그리움. 아침에 일어나 밥먹고 아이들과 학교가고 공부하고 놀고, 의지도 의욕도 없는 상실된 하루. 하루가 가고 밤이되면 나는 혼자가 되었다. 벽에 쓰여진 낙서가 이해되는 순간과 시기가 나에게 찾아왔다. 말하고 싶었다 누군가와. 지금 함께하는 이들이 아닌 가족과 친구와, 내가 두 온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웃고 때론 인상을 쓰며.

그렇게 내가 한국을 생각하는 사이에 나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막말하는, 답 없는 인간이 되어있었다. 삼주 전 오늘, 이주 전 오늘, 그리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오늘에도 그냥 모를 답답함과 짜증을 팀에게 풀고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원들끼리 솔직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 날 팀원 중 한명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며 팀원들에게 요즘 왜 그러냐 오늘 너무 심했다. 원래 이런애냐 앞으로도 이럴거냐 라는 식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그 날의 일을 떠올리고 그 전의 일들을 떠올리며 내가 요즘 막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날 팀원들과 그 때, 그 시간의 나의 상태를 얘기했다.

그 밤 이후. 나는 뭔가 답답함이 풀어진 기분으로 생활 할 수 있었고 조금씩 조금씩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세상에서 떨어진 곳에서 의지 할 사람은 인터넷으로 연락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끔 전화하며 연락하는 이들도 아닌 지금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다. 현재 나의 상황과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가장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한달 남은 시점에 소중한다는 걸 깨달은 게 참 바보같지만) 나는 이곳에서 나의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

아프지마.

아프더라도 10분만 세계 아프고 말아.

네가 그 아픔을 남에게 전가하려 든다면 그 사람도 아플 거거든.

그가 조금도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 아픔을 다 쏟아 놓지는 마.

애초 앓던 그 사람 아픔은 숨이 막혀 곱절이 돼버리거든.

[끌림 - '아비의 맘보']/ 이병률